

## 북한 청소년의 생활과 발달에 대한 연구\*

민성길\*\* · 전우택\*\* · 윤덕룡\*\*\*

Life and Development of Adolescents in North Korea\*

Sung Kil Min, M.D.,\*\* Woo Taek Jeon, M.D.,\*\* Deok Ryong Yoon, Ph.D.\*\*\*

### 국문 초록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북한 청소년의 생활과 발달 문제를 이해하여 남북통일후 주민상호적응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 연구대상 및 방법 :

탈북청소년 3명을 포함한 21명의 탈북자들을 직접 면담하고, 또한 131명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 청소년의 생활과 발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 결 과 :

청소년들의 생활은 단순하고, 궁핍한 것 같다. 혼히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가족이 중요시되지 않는다고 알려진 바에 비해, 북한에서 가족의 유대는 강한 것 같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비교적 일찍 가정으로부터 이별을 강요당하는 것 같다. 북한의 일반 청소년들은 가부장적인 전통 유교적 가치관을 유지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하에서, 국가에 의해 강하게 통제된 일방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타주의와 사회적 공헌, 국가와 지도자에 대한 충효가 강조되는 등 사회주의의 특유의 소위 고상한 품성이 교양 되도록 교육되고 있는 것 같다. 그 훈육방법은 획일적 주입과 상벌의 통제와 단순 반복적인 자아비판이 주종이기 때문에 단기적 효과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진정한 인격으로 통합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최근 북한 사회는 경제난과 다소의 사회의 개방쪽으로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돈벌이에 대한 관심의 증폭과 더불어 청소년 비행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 청소년은 신체발육이 지체되고 있는 것 같으며, 더불어 정신성적 발달도 다소 늦은 것 같다. 북한사회가 외부와 단절되어 있고, 학교 교과과정도 획일화되어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지적 자극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인지기능이 다소 뒤떨어진 것 같으며, 따라서 세계관이 좁은 것 같다. 남녀간의 차별이 크고 여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크다. 성적 주체성의 확립도 다소 늦은 것 같으며, 이성교제의 폭도 좁다. 오히려 동성간의 동무관계와 집단에 대한 의리가 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그 집단을 유지하는 것은 폭력

접수일자 : 1999년 5월 20일

심사완료 : 1999년 8월 9일

\*본 연구는 1995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연구비로 이루어진 것임.

\*본 연구는 1997년 11월 21일, 97보건의료기술개발연구 발표회(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구연되었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Department of Psychiatr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구교수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for Korean Unification Studies, Yonsei University, Seoul

논리인 것으로 보인다. 사회의 권위(부모, 교사, 당, 국가, 주석)도 대개 권위적 모습을 띠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이에 대해 반항하기보다 두려워하고 순응하고 체념하는 것 같으며, 그런 순응의 표시는 거의 형식화되어 있다. 이러한 청소년기 상황은 성인세계의 당과 국가사회에 대한 충성으로 이어지도록 체계화되어 있는 것 같다. 사춘기 특유의 자아 정체성을 위한 혼란기는 있는 것 같으나 심각하지 않은 것 같고, 다소 늦게 시작되는 것 같고, 가족성분이라는 제한조건에 따라 일찍 체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다. 북한청소년들은 사회주의적 교양에 의해 이타심, 애국심, 사회에 대한 공헌, 친구간에 우정과 의리 등을 중요시한다. 형식적 자아비판 등 이념적인 도덕성만이 불균형적으로 비대한 것 같다.

### 결 론 :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북한청소년들의 생활과 발달이 남한과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남한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청소년들에 비해, 북한청소년들의 특징인 순박성, 순응적 품성, 강한 가족적 유대, 집단성, 의리의 중시 그리고 이타주의적 품성 등은 적절한 교육을 통해 통일 후 사회건설에 긍정적으로 공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통일 후 남북한 주민간에 상호적용 문제가 단순치 않다는 사실과 더욱 철저한 사전 연구를 통해 준비해야 함을 시사한다.

**중심 단어** : 청소년 · 북한 · 탈북자.

## 서 론

최근 남북한 통일에 따른 남북한 주민의 상호 적응에 대한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주로 탈북자의 남한사회적응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sup>1)</sup> 이러한 연구들 중에서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은 장차 장성하여 사회의 주역이 될 것이므로,<sup>2)</sup>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남북통일의 과업이 당장 실현되지 않고 시간이 걸릴 일이라면 지금의 청소년들이 자라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이 통일의 주역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남북한의 청소년이 어떻게 자라왔고 앞으로 어떻게 성인이 되어 가느냐하는 문제는 우리의 통일 과업에 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다. 북한은 잘 통제되고 있는 사회여서 북한 청소년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구하는 것에 한계가 많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지금까지의 북한 청소년에 대한 연구들도 이데올로기 내지 정치적 영향으로 더욱 제한적이었다.<sup>3)</sup> 한편 남한사회나 남한 사람들, 남한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는 충분한가 하는 문제에 이르면 이 역시 충분하다고 할 수가 없다. 더구나 지금까지 남한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이, 북한 문제나 통일에 대해 어떤 교육을 받았으며, 그들의 이미지는 어떠하며, 북한인이나 북한 청소년을 대할 때 나타날 품성, 생동방식, 가치관 등이 어떠할지에 대해 생각하면 통일에 앞서 두려움

이 느껴진다. 어쨌든 우리는 가능한 많은 자료를 토대로 적절한 남북한의 상황에 대해 진단을 내리고 원인을 밝히며 이를 기초로 향후 통일에 따라 나타날 여러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으로 북한 청소년들의 생활과 발달에 대해 조사 연구한 것이다.

## 연구방법

### 1. 탈북자 면담

북한청소년에 대한 직접적 자료나 연구논문을 구할 수 없어, 우선 21명(남 18명, 여 3명)의 탈북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그들 자신들이 청소년시기의 겪은 경험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35.1( $\pm 8.5$ )세 였다. 이들의 북한에서의 학력은 인민학교 2명, 고등중학교 10명, 기술전문학교 3명, 대학교 4명, 박사원 2명이었다. 귀순 2년 이내가 5명, 3~5년이 11명, 6~8년이 5명이었다. 북한에서의 직업은 학생이 6명, 당정요원 5명, 노동자 6명, 주부 1명, 기타 3명이었다. 그 중 청소년기에 있는 3인의 청소년과의 면담은 직접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 청소년들은 면담당시 만 15세 남자, 17세 남자, 19세 여자로서 남자는 모두 북한에서 고등(중)학교 재학중, 그리고 여자는 보육학교(전문대학 해당) 재학중, 전체 가족과 같이 탈북하였다. 이들은 북한의 한 지방도시 출신으로, 경제적으로는 북한 수준에서 중류층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이들

로부터 직접 자신들의 생활, 주변 동무들의 생활과 생각들에 대해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전체방법은 질적연구(qualitative study)내지 문화인류학적 조사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그 자세한 방법은 다른 논문에서 자세히 기술한 바와 같다.<sup>4)(5)</sup> 면담은 21명으로 구성된 주요정보제공자와의 면담과 5명으로 구성된 초점토론집단과의 토론면담으로 구성되었다. 탈북자들과 면담은 모두 48회(1인당 평균 2.3회), 1회당 평균 1.8시간, 총 79.8시간의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은 반구조적이었으며, 가능한 자유롭게 의견이 전술되도록 하였다.

## 2. 설문지 조사

관련 정부기관의 도움을 받아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1996년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에 소수의 탈북자와 초점토론을 통해 가능한 많은 질문을 도출하였고, 이를 중에서 설문이 너무 많으면 협조 반기가 어려우므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22문항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설문내용도 탈북자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소수의 탈북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식 문장과 단어로 고쳐 사용하였다.

설문대상 탈북자들은 131명이었다. 남자 111명 여자 8(무응답 12명) 명으로 연령은 21~76세(평균 44.4±15.1(SD))였다. 그들의 탈북시기는 1947년부터 1996년까지 분포되어 있었으며, 탈북한지 1~3년된 사람이 51명으로 가장 많았다. 설문지는 탈북자가 응답을 한 후, 밀봉하여 우편이나 인편을 통해 회수되었고 이를 협조기관에서 모아서 연구자에게 전달되었다.

## 3. 통 계

설문지 결과를 백분율로 표시하여 비교하였다. 결과기술증 팔호안 백분율은 설문조사시의 응답율이다.

## 연구결과

### 1. 북한 청소년의 생활

#### 1) 일상생활

##### (1) 하루일과

북한 청소년들은 대개 아침 일찍 일어난다. 일부(약 5%)는 철봉, 평행봉, 축구 등 새벽운동을 즐긴다. 기상

후 집안을 정돈하고 아침 식사한 후 등교한다. 등교거부나 무단결석은 거의 없는 편이다. 수업은 대개 오전(또는 오후)에 있으며 나머지 시간은 사회행사에 동원된다. 여가에는 소수의 집에서 공부하는 학생과, 다수의 노는 아이들로 구분된다. 대개 집단을 이루어 같이 놀다. 비교적 단조로운 생활이다.

##### (2) 여 가

비록 학교에서 엄격한 규율에 따르는 행동을 하지만, 여가시간에 자기들끼리 어울릴 때는 패거리 만들고 패싸움도 잘하고 약간의 비행도 저지르기도 한다. 일요일 같은 여가시간에는 집안 일을 돌보는 것(34.9%) 이외에 노는 시간이 많은 편인데(30.2%), 학업보충(17.5%)은 다소 뒷전이다. 놀 때는 서로 모여 이야기하거나 철봉, 평행봉, 축구나 놀이, 미역감기를 하고, 패싸움도 자주 한다고 하는데, 패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큰 기쁨이 되고 싸움잘하고 이기는 것이 큰 명예이다. 그러나 19세가 넘어가면 싸우는 일에 대해서는 시들해 진다고 한다. 대화의 화제는 대체로 TV 본 이야기, 패싸움 이야기, 여자 이야기(누구가 예쁘다 등), 그리고 동네사건 이야기, 그리고 간첩잡은 이야기, 남한 이야기(북한 청소년들은 남한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한다) 등이다. 집단에 따라서는 학교에서 나름대로의 소극적인 반향행동도 한다. 이성과 교제하고 싶어하기도 하나 기회가 적다.

일부 학생들은 책도 읽고 노래도 부르기도 한다. 주로 읽는 책은 러시아의 고전 명작들(안나카레니나, 고리오 영감, 전쟁과 평화 등), 왕자와 거지, 보물섬, 몬테크리스토 백작, 걸리버 여행기 같은 소년소녀소설, 놀새바람, 임꺽정전, 동학농민전쟁 같은 역사 소설들 그리고 과학과 인생, 독소전쟁, 반탐이야기(간첩이야기) 등이다(춘향전 같은 책은 없다고 함). 위인전으로는 에디슨, 뉴턴 등이 소개되고 있다. 남한책으로는 태백산맥 등이 알려져 있다고 한다. 노래는 이념적인 것 보다 생활이나 남녀관계에 대한 것이 인기가 있다. 남한 노래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청소년들이 그것이 남한 노래인 줄 모르는 수가 많다고 한다.

##### 2) 가정생활

청소년은 대개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등과 핵가족을 이루어 가정생활을 한다. 가정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수도 있다.

북한에서는 가족관계가 해체된 것 같다는 판단은 옳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북한의 가족생활은 지난했지만 가족간 유대가 더 돈독했던 과거 5, 60년대 남한의 가족 생활과 유사한 것 같다. 한 탈북자의 표현을 빌면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자식들간의 관계는 남한보다 더 “끈끈하다”고 한다(그들이 보기에도 남한에서는 부모자식간도 개인주의적이고 서로 편하게 거리를 두고 서로 부담주지 않으려는 관계 같다고 한다). 실제로 고민거리가 생기면 주로 부모(29.7%)와 상의하는 경우가, 친구(23.0%)나 조직책임자(12.4%)와 상의하는 경우보다 많다. 형제와 상의하는 경우(9.6%)는 드물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청소년이었을 때 자신의 교육에 있어 부모의 영향이 크다고 한 경우가 51.2%나 되었다.

대개 부모는 자식들이 큰 사람 되라고 가르친다. 그 것은 청소년들은 다른 아이들에게 따돌림 안 당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머리가 되라는 뜻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 훈육의 내용은 공부 잘하라는 것(20.2%) 보다 도덕적 훈육(35.1%)과 사회사상을 잘 학습하는 것(18.6%)이 중심을 이룬다. 부모가 가장 많이 야단치는 비행은 거짓말(28.0%), 도둑질(28.0%), 정치학습과제를 소홀히 하는 것(15.0%), 정치행사 결석(8.8%), 학교에서 비판받는 것(7.0%) 등이다. 청소년들도 부모에 대해 무관심하거나(21.4%), 피하거나(13.5%), 반항하기(7.1%) 보다 부모를 존경하고 잘 따른다(30.1%). 따라서 고민거리가 있으면 주로 부모와 의논한다.

전체적으로 가부장적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대개 청소년들은 집안이나 가문, 조상 등에 대해 거의 모르는 편이고 부모들도 그런 일에 대해 이야기 해주는 경우가 드물다고 한다. 할아버지 이상 조상에 대해서 모르고, 따라서 족보나, 가훈이나 본관 등의 단어를 모른다고 한다. 제사는 있는데 1년 1회 정도 할아버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치뤄 진다. 단지 할아버지가 항일투사나 빨치산일 때는 그런 이야기는 자랑스럽게 전해진다.

### (1) 아버지

아버지는 대개 엄하고 무섭다. 그들은 술을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아이들과 노는 일은 드물며 자녀교육에 자상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대체로 자식을 엄격히 다룬다. 그러나 속으로는 자식을 위하는 마음, 자식이 잘 되어야 한다는 마음은 남한의 아버지와 다름이 없어 보인다. 아버지는 대개 아이들이 학교 가서 인사 잘하고, 조

신하게 처신하는 것, 친구 잘 사귀고, 말을 조심하라는 주의를 많이 준다. 그리고 출세하기 위하여 공부 잘하여 김일성 종합대학 가는 것이 아버지의 일반적 희망사항이다. 그러나 교육열이 남한만큼 강하지는 않은 것 같다. 집에서 형제 중 하나만 선택하여 대학에 보내는 분위기다. 아버지는 훈육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 밖에서 사고 치거나, 싸웠거나, 거짓말할 때 등 경우에는 무섭게 때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자식이 밖에서 맞고 들어오면 무조건 이겨야 한다면서 야단치기도 한다. 자녀들은 어릴 때나 청소년 때는 아버지의 이런 모습에 무관심해 지거나 무서워하며 특별히 존경이나 애정의 마음을 갖지 않은 것 같다.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의 입장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나 청소년기에는 대개 무서운 존재로 멀리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 (2) 어머니

자식에게 잘 해 주려는 어머니 모습은 남한 어머니와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이 여성을 가사, 육아로부터 해방시키고 남자와 같이 산업장에서 일을 하도록 한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 요즈음 북한 어머니들 중 일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적고, 집에서 가사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대개 가정적이며 그 모습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모습에 가까운 것 같다.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위해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고등중학교에 다니고 있을 동안 한번은, 겉은 나대바지 하나와 흰 티셔츠를 입게 해주려고 한다. 남한의 어머니같이 봄도 셋겨주고 숙제도 도와주곤 한다. 대다수의 북한 어머니들은 자식에 대해 깊은 애정과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잘해 주고자 애쓴다. 그러나 어머니들은 자신들의 힘이 부족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 같고 자식들도 이런 안타까움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이 북한 어머니는 고생이 많으므로, 대개 자식들이 첨들면 어머니를 도와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한 탈북청소년 여자는 어머니, 나이가 전체적으로 여성은 북한에서는 불쌍한 존재라고 하였다.

## 3) 학교생활

### (1) 학교 수업

고등중학교는 6학년인데 남한의 국민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된다. 대개 한 학년에 4~5학급이 있고, 일개반은 4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90년대부

터 남녀 공학이 되었다고 한다.

학교교육은 북한에서는 대단히 중요시된다.<sup>67)</sup> 대체로 정치사상과 이념교육(34.8%), 김부자 우상화(31.3%), 남한에 대한 적대감(10.6%), 그리고 도덕적 품성(7.6%), 조직생활(6.6%)등이 강조되고 있다.

교과과목은 남한에서와 유사하다. 수학은 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 같다. 역사는 고구려 중심으로 가르킨다. 과학은 남한에 비해 실험실습이 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학생들이 실습시 제공된 화공약품으로 화약을 만들어 장난한다는 정도이다.). 외국어로는 러시아어를 배우며 회화보다 문법 중심이라 한다. 예술 교육은 수준이 낮은 것 같다. 서양음악은 거의 교육되지 않은 것 같다. 많이 보급되어 있는 악기는 하모니카라고 한다. 시험은 거의 주관식이다.

15세경(고등중학교 4학년)에는 7~8%의 학생은 진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신분상 진학 가능성이 적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숫자가 줄어들다가, 17.8세(고등중학교 6학년) 졸업이 가까움에 따라 3, 4%만이 열심히 공부하게 된다. 그래도 성적이 관심이 되는 이유는 성적이 나쁠 때 교사가 때린다거나 여학생 보기에 창피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따라서 시험 때 컨닝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나머지 학생들은 진학은 아예 포기된 상태이므로 운동하거나 놀거나 장난을 하고 지내는 것을 더 좋아한다. 공부에 대해 시샘이 심한 학생이 1~2명은 늘 있다고 한다. 요즘은 식량을 구하러 다니는 학생이 많아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북한 청소년에게는 학교에서의 자아비판이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다. 이는 도덕교육에 해당된다고 보지만 그 형태는 정치사회적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이 형식화하고 있는 것 같다. 생활총화시간에 교사가 대개 종용하거나 엄포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대로 말 잘하는 3~4명의 학생이 “자발적으로” 앞에 나가 자신에 대해 자아비판 하게된다. 그후 호상비판이라 하여 2~3명의 급우들이 차례로 자아비판한 내용에 대해 토론한다. 이때 다른 친구들의 잘못도 고발하면서 비판한다. 같은 자아비판을 매번 반복하다 보니 같은 말을 외우듯이 상투적으로 반복한다. 즉 “수업 시간에 떠들었다” 같은,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을 비판하는 것이다. 정말 누군가 잘못한 것을 비판하면 그 아이는 나중에 보복 당하기 때문에 정말 비판할 일

은 말 못한다. 최종적으로 교사가 자아비판에 나온 일에 대해 토론하고 다음에는 양심적으로 하라고 그것도 상투적으로 말한 다음에 끝난다. 학생들은 이 시간을 지겨워한다.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니 학생들 마음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풍토가 생기는 것 같다고 한다. 그러나 보다 어린 나이의 인민학교때는 어린이들이 진심으로 자아비판을 한다고 하는데, 고등중학교에 들어오면서 눈치가 생기고 진짜로 자아비판을 하지 않으며 완전히 형식적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사회행사 참여는 학교생활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군중동원시 참여하거나 노력 봉사로서 농사활동을 하는 것 등이다.

## (2) 교사와의 관계

북한에서는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때 한 학급이 정원 그대로 진급하며 담임교사도 한 사람이 계속 졸업할 때 까지 담당한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들 사이가 매우 가깝다. 그러나 교사와의 관계는 매우 엄격한 것 같다. 교사는 학교 안에서는 높은 권위자이며 무조건 존경받는다. 마치 수령과 교사, 그리고 아버지는 청소년들에게는 동일시되는 것 같다. 훈육 방법은 엄격히 상과 벌을 통해 행동을 조정하는 것이다. 자아비판을 통한 질책(35.1%)과 단체기합(11.4%)이 주종을 이루는 것 같다. 그 이외의 훈육방법은 반성문 쓰기(21.1%), 밀로 설득함(11.8%), 칭찬과 상(8.8%) 등이다. 그러나 청소년 자신들은 교사들이 많이 때린다고 말하고 있다. 유치원때부터 교사는 때리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다. 학교에서 교사에게 매맞는 것에 대해 대개 학생들은 감수하며, 집에 와서도 부모에게 일리바치는 것은 사나이답지 못한 일로 믿고 있다(그래서 탈북자 설문지에는 매 때리는 일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매맞는 것이 다 반사로서 교사가 때리지 않으면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고 한다. 교사를 만나면 만날 때마다 무조건 90°로 인사하는 것이 의무라 한다.

학교선생님이 강조하는 것은 당과 국가에 충성하고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그것은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충성하는 것, 그리고 솔직하라는 것과 이기주의를 버리라는 것이다. 개별적으로는 인사 잘하는 등 예절에 대해, 그리고 대인관계 등 세상사는 지혜에 대해 많이 강조한다고 한다. 아이들은 자기들은 전쟁 나면 다 이 한 몸 나라 위해 바치겠다는 이야기를 하나 선

생님들은 너희가 말만 그렇게 하지 정말 하겠니 하고 이야기한다고 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대개 영웅이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고 한다. 탈북 청소년들에 의하면 북한의 교사는 남한의 교사보다 더 열성적이라 한다. 그러나 교사 개인적으로 자기들끼리는, 남한교사에 비해 훨씬 덜하지만, 교육제도나 교사 대우에 대해 불만을 토론하기도 한다고 한다. 이에 비해 남한의 교사들은 자신들의 불평불만을 학생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하는 것이 너무 심하다고 탈북 청소년들은 느끼고 있다. 북한에서는 교사는 대체로 인기 직업이다. 수입은 많지 않으나 학부모들이 수시로 물건이나 음식을 갖다 주기 때문이기도 하다.

#### 4) 교우관계

##### (1) 친구관계

북한 청소년은 한 번 친구가 되면 끝까지 가는 것으로 믿고 있다(탈북 청소년의 말을 빌면 남한에서는 쉽게 친해지고, 쉽게 깨어지고, 진정한 믿음을 감추는 것 같다고 하였다). 인기 있는 친구는 출신분이 좋거나 (38.2%), 남을 잘 도우는 의리 있는 친구(35.8%)라 한다. 공부 잘하거나(16.0%), 잘 놀거나(7.6%), 외모가 잘난 친구(1.5%)는 별로 인기가 없다고 하여 남한과 대조적이다.

북한 청소년들의 대인관계는 패거리리를 이루는 것이 특징적으로 보인다. 학교, 반마다 조직 폭력배와 같은 "패"가 있다. 흔히 주말에는 한판 패싸움이 벌어져 머리가 깨지고 들어온다고 한다. 명절 때 함께 돈을 모아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같이 노는는데, 흔히 이때 패싸움도 한다. 처음에 1학년 때는 소수가 패조직에 가입하나 결국 졸업 할 때는 거의 전원이 어느 한패에 가입하게 된다고 한다. 패조직에 안 들어가면 패의 아이들에게 매를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패의 아이들에게 복수 하려면 다른 패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면 그 패의 그 아이들이 복수해 준다고 한다. 조직에 가입하지 않은 아이는 굴욕을 받는다. 고자질하면 더 때려준다. 패싸움 때는 대부분 돌로 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달려가 때려주는 식이다. 패싸움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부가 처벌하기도 하나 그렇다고 패조직이 해체되는 법은 없다고 한다. 술, 담배를 구하기 위해 부잣집 아이에게 집에서 가져오라 시키거나 두목이 마련하거나, 동네 사람에게 키우는 닭을 훔치거나 해서 돈을 마련한다고 한다.

조직은 머리가 하나 있고, 그 아이 주변으로 부하들이 모이는 식이다. 중간 보스 형태도 있어 중간 규모의 조직을 관리한다. 패거리의 작은 두목은 대개 성격이 거칠고 싸움 잘하는 그러나 집이 가난한 아이가 된다. 그 패조직이 학교 단위로 커지게 되면 두목은 대개 출신성분이 좋은 집안의 아이 즉, 중간 당 간부집 자식들로서 말 잘하고 싸움 잘 하는 아이들이 된다. 학교 전체의 두목이 되는 아이는 소년단 위원장이나 사로청 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 공적인 일을 할 때에도 자기 조직이 있어야 편하므로 패거리 조직을 열심히 한다고 한다. 자기와 연관되어 있는 아이가 그런 두목을 맡으면 자기 뒤를 봐 주는 사람이 힘있는 사람이라 하여 좋아한다고 한다. 북한은 철저히 "자기 사람 봐 주기 식"의 사회이며, 어린 시절부터 그것이 강하다. 학교에서 무엇을 모아 가지고 오라는 과제가 주어진 상황에서도, 패거리의 두목이 부하를 의무에서 빼주거나, 다른데 가서 훔쳐오는 것을 허용해 주기도 하는 등 패거리 아이들이 서로 봐주면 잘 해결된다고 한다(그것은 어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전체 장을 뽑을 때는 아이들이 저건 대장 간이다 하고 여겨 뽑게 된다. 강한 조직일수록 규율이 있고, 약할수록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 이런 청소년 패거리는 나이가 많은 학교 밖 사회의 특수부대 출신 사람들의 조직이나 다른 더 큰 힘있는 조직의 사람과도 연계되어 있어 보호받는다고 한다.

졸업하면 각자 흩어져 감으로 이 조직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중에 성인이 된 후 이 조직끼리 장사를 하거나 하여 다시 모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어른 집단은 젊은 23~4세 된 사람들로서 어떤 구역을 맡아 시장을 보호해 주고 거기서 뜯어먹고 산다. 식량을 파는 것 이외에는 대부분이 불법이므로, 공안원들이 와서 물건만 빼앗아 갈 때와 정말 중앙의 검열단이 와서 사람까지 잡아 갈 때가 있다. 그런 불량조직은 당간부-공안원-장사꾼들과 먹이사슬 관계가 되어 있어 서로 보호해 준다. 여자 특수부대 출신의 여자가 그런 패들을 다 혼내주는 신화 같은 이야기도 전해져 온다. 중학교 아이들은 늘 이런 신화속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보병과 해군, 시민과 군인끼리의 패싸움이 있으면 무조건 한 편이 되어 싸운다. 공장 같은데서 한번 패싸움 나면 너무 분위기가 험악해 공안원도 끼어 들지 못한다고 한다. 경무원(현병) 쪽이 공포를 쏘면 그때는 다 한꺼번에 도망가 흩어진다고 한다. 북한에는 악하

나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공장 같은 데서 몇십명과 싸우면서도 끝내 굴복하지 않아 맞아죽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폐싸움은 북한 청소년들의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인 것 같다. 대학에서는 제대군인이 대개 대장 노릇을 한다. 보통 청소년들은 고등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가는 아이들이 가장 불쌍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완전히 그 대장들의 손발 노릇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전체, 그리고 권력의 상부가지 이와 같은 폐거리의 자기사람 봐주기 체제로 되어있어 탁북자들은 이를 봉건적 조직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북한 청소년들은 서로 친구들에게 매우 헌신적이다. 심지어 누나 옷감을 가져다가 친구에게 주어 함께 같은 바지를 만들어 입고 다니기도 한다. 틸북자 청소년은 남한에 있으면서도 북한 친구들 생각 많이 한다고 하였다. 그 아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군에서 휴가 나온 아이들이 있을 텐데 등등. 북한에서는 그 “끈끈한” 인간 관계, 너무 힘든 상황에서도 함께 일하고, 일 다 한 다음에 남의 일 해주고는 함께 쉬고 떠들고, 닭서리, 사과 서리 해 먹고, 꿩보리밥 가져다가 숨기면서 먹는 재미, 아주 똘똘 뭉쳐서 살아 거기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인간관계의 맛을 누리고 사는데, 남한에서는 도저히 그런 것을 느낄 수 없다고 하였다. 같이 나누어 먹는다는 의식이 매우 강조된다. 따라서 여름에 농촌 노력봉사에 가서 간식을 혼자 먹으면 그 아이의 간식은 그 다음부터 다른 아이들이 폐거리지어 다 뺏어 먹어 버려, 그 아이는 일종의 공적이 되는 판행이 있다.

보다 나이 어린 아이들은 동네 안이나 인근 산과 들에서 모여 즐겁게 논다. 큰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 것을 빼는 수가 혼한데, 어린애들은 그런 큰애들을 토벌군이라고 부른다.

여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폐거리를 이루는 수가 있다. 폐거리에 포함되지 않으면 따돌림을 당할 뿐 아니라 누구한테 물매를 맞을 때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셈이다.

요즈음 청소년들 사이에는 가족 중에 재일 교포나 재미교포가 있는 아이들이 인기가 있다. 그들이 북한가족에게 돈을 보내주기 때문이다. 재미교포나 재일교포 가족에 대해서는 전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대상이 되었는데 이제는 부러워하게 된 상태가 되었다. 과거 이 아이들은 인민학교에서는 “쪽발이”라고 놀림을 받으나, 고등중학교에 올라가서는 돈이 힘을 쓰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된다. 이 아이들과 잘 친해 있으면 명절날에 얻어먹을 수 있다. 북송교포 여자아이들은 얼굴은 안 예뻐도 그 피부가 하도 고와 부러움의 대상이다. 이 아이들도 역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폐에 들어가게 된다.

## (2) 이성관계

전체적으로 북한 젊은이들은 매우 유교적이고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이성교제를 나쁜 것으로 보는 편(53.4)이다. 반면 무관심(32.2%), 또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고 허용하는 경우(14.4%)도 있다.

북한 청소년들도 남한에 비해 다소 늦게 나타나기는 하나,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나 이성교제, 성적 행위 등은 그런 대로 발견되는 것 같다. 대개 15, 6세때 고등중학교 5학년(남한의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이성에 눈뜨고 교제하고 싶은 생각이 나타나며, 17, 8세가 되면 용기 있는 아이들은 데이트를 청하게 된다. 대개 고등중학교 졸업때 술 마시고 좋아한다는 말을 고백하기도 한다. 그때는 대개 입대를 앞두고 있을 때이며, 사람에 따라 제대할 때까지 자기를 기다려 달라고 하기도 한다.

청소년기때 학교에서 남녀 학생간에는 거의 말을 않고 지내나, 그렇다고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잡담때 여학생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심각한 얘기는 아니라고 한다. 같은 반 여자아이한테는 말을 잘 안 하거나 다른 반 여자아이들에게는 장난을 걸고 괴롭힌다고 한다. 그러면 그 반 남자아이들이 보복하는 장난을 한다고 한다.

북한에서도 데이트는 하나 밤에 따로 걷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평양에는 가로등이 있으나 지방도시에는 별로 없다). 깡패들이 반드시 “히야까시”를 하기 때문이다. 성을 밝히는 청소년들은 애무도 하고 성행위까지도 이르게 되기도 한다. 대체로 청소년들을 성적 행동에 대해 무지하다고 한다. 키스로도 임신하는 줄 아는 아이가 많다고 한다. 대체로 성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고 숨기려고 한다. 특히 자위행위(용두질)에 대해서는 수치스럽게 여긴다. 성병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수가 많으나 대개 늦게 알게된다. 남자를 밝히는 여자아이에 대해서는 경멸하는 태도가 있다. 학교에서는 성교육이 거의 없다. 여자아이의 경우, 이에 대한 교육은 어머니가 하는 것 같다. 월경시에는 집에서 위생대를 만

들어 쓴다고 한다.

북한 여자들은 모여서 남자들 이야기를 많이 떠든다. 누구를 속으로 좋아하는데 그 아이가 오늘 어떻게 행동했다고 말하면 그것에 서로 동의를 하거나 반대를 하며 수다를 떠는 것이다. 결혼에 있어 중요한 것은 돈 많고 능력 있는 상대이다. 그러나 고등중학교 출신 청소년들 의 경우 남자를 고를 때, 대개 남자가 생활하는 것을 보며 고른다. 물론 잘 생겨야 한다. 그러나 우선 성분을 본다. 자기 성분하고 맞는가를 보는 것이다(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지금 철저하게 봉건적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삼각관계가 생길 때 쉽게 포기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즉 대인관계에서 그렇게 까지 아득바득 경쟁하거나, 자기 이익이나 욕심을 채우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다. 여자아이들이 대학에 가면 결혼하기 힘들다. 25세 이면 노처녀 소리 듣는데 상급학교에 가면 그만큼 결혼할 나이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북한사회는 남성중심주의 사회로서 전체적으로 여자를 멸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청소년 사이에서도 그런 태도가 뚜렷하다. 여자는 암전해야 되며 남자에 대해 정숙하고 다소곳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생각이 뚜렷하다. 인민학교(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남녀 학생들이 잘 어울려 같이 놀지만, 고등중학교에 들어오면 즉 사춘기가 되면, 여자아이들은 남자 앞을 지날 때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학교에서도 여자는 남자에게 공경어를 쓰라고 가르킨다. 그러나 학교에서 동급생들에게 공경어를 쓰라고 하지는 않으나 졸업하고 직장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공경어를 쓰게 된다고 한다. 한 여자 탈북자는 남한에 와서도 남자동생 친구들에게 존대말을 쓴다. 남여 차별이라는 개념은 없고 당연히 여자는 남자를 존경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있을 뿐이다. 북한에서는 남자들의 여자에 대한 표현은 아주 적설적이다. “여자는 남자의 깔개이다”라는 욕을 함부로 하고, 예쁜 여자아이가 있으면 “너 나와 하루밤 안 잘래? 쟁(돈) 줄께”라는 말을 함부로 막 해댄다. 문제 가 있어 여자가 맞을 짓을 했을 때는 남자는 당연히 헤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처럼 행세한다. 청소년들이 여자를 부를 때 간나는 예사이고 깔개, 혹, 비조리, 등등 멸시적 별명을 사용한다고 한다. 남자애가 뭘 시키면 여자는 으례히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농촌에 노력동원을 가면 여자들은 자기 빨래를 자기 가 하나 남자들은 그런 것은 자기들이 절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을 여자아이에게 부탁을 하면 당연히 해주는 것으로 안다. 가끔 그런 일을 거부하는 여자아이도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으로부터 “넌 여자라는 게 그것도 안 빨아 주는가?”하고 야단을 맞는다고 한다. 그래서 한 여성 탈북자는 여자로 태어난 것이 쉽고 한이 된다고 하였다.

19세가 된 후기 청소년기에 있는 여자인 탈북자 한사람은 남한에 와서 여자가 당당하고 “건방진” 태도를 보이고 남자와 같이 어울리고 같이 술 먹고 담배 피는 모습을 보고, 여자가 어찌 저럴 수 있나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 탈북자는 남한의 여대생들이 공부는 잘 안하고, 사치하고 술을 마시고 거기다 담배까지 피우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었으며, 꼬불견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였다.

### 5) 사회생활

북한 청소년은 학교 이외의 사회조직에도 가입되어 있는데, 이는 사로청으로 고등중학교 4학년(남한의 중학교 2학년)부터 20대말 입당할 때 가지(대개 결혼할 때까지)이다. 그때 입당 못하면 죄망(직업동맹)에 가입된다. 군대에는 고등중학교 졸업후 지원입대 하는데, 군대 못 가면 사회에서 사람취급 못 받는다고 한다(요즈음은 식량난 때문에 군대 입대도 기피되고 있다고 한다).

전반적으로 북한의 사회분위기는 곁으로 보기에는 당시 의도 하는 대로 혁명성, 계급타파, 집단주의의 강조, 당과 국가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과 헌신, 주체사상, 고상한 사상의식, 정치도덕적 관심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sup>67)</sup>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들의 생활은 단조롭고, 궁핍하고, 메마르고, 거칠하다. 그리고 엄격한 권위주의적, 전제주의적 사회이다. 지배적인 분위기는 힘(권력과 폭력), 상과 별 위주로 통제되는 사회, 공포와 피해의식이 가득찬 사회인 것 같다. 수령과 당, 아버지, 교사 그리고 남자는 주로 힘있고 무서운 존재이며, 보통시민, 자녀, 학생이나 여자는 예의를 갖추어 순종해야 하는 존재이다. 그렇게 순종하면 윗사람이 베풀어주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윗 사람에게 잘 보인다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 사회 내에서도 패거리 두목에게 복종하며, 약자 위에 군림하는 태도가 발달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성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자신들의 사회를 “봉건사회”라고 스스로 부른다고 한다.

당 간부의 자식은 간부가 되고, 여자가 고위층에게 잘 보이면 안생이 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성분도 좋고 공부도 잘하면 당 간부가 되고, 성분은 나쁘나 공부를 잘하면 대학교수가 되고, 성분도 나쁘고 공부도 못하면 군대가서 충성하여 입당하는 것이 최선의 목표가 된다고 한다. 당 간부가 되는 것은 위낙 힘들다. 우선 간부학교를 졸업하여야 하는데 저기는 성분이 좋아야 입학할 수 있다. 그리고도 연줄이 있어야 승진 할 수 있다. 북한의 청소년들은 당간부 자식이 당간부 되고, 공안원 자식은 공안원 되고, 보위부 자식은 보위부원이 된다고 믿고 있다. 중앙당은 빨치산 출신이거나 그 친척들이라야 한다.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출신성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식적으로는 엄격한 사회체제로 보이나, 실제 동네 생활에서 어른들이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간섭하기보다(15.4%), 방관적인 경우(27.1%)가 더 많다.

북한에서는 청소년들에게도 확고한 국가관을 심어줄려고 애쓰고 있다.<sup>67)</sup>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것 같다. 청소년들은 과거 우리나라라는 역사적으로 일제식민지시대 이외에는, 강하고, 자랑스럽고, 위대한 나라였다고 교육받는다. 그들은 교육받은 대로 진심으로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존경하며, 나라가 가난한 것은 곁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기 때문으로 믿고 있다.

만일 통일된 후 북한 청소년들의 통일된 사회에의 적응에 있어 어떤 점이 문제가 될 것인가 하는 설문에 대해, 기본적 이념(25.1%), 자유에 대한 개념(22.7%), 사고방식의 차이와 문화적 갈등(16.6%), 그리고 경제적 차이(12.3%), 경쟁의식의 차이(7.4%)등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고 응답하였다.

## 6) 청소년 문제행동

청소년 문제행동 내지 비행에 대해서 통계 자료를 구할 수가 없어, 그 실상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더구나 청소년들의 정신장애에 대한 자료는 구할 길이 없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보기에는 북한의 청소년 비행문제는 남한에 비해 덜한 것 같다(41.8%)고 보기도 하나, 일부에서는 남한과 비슷하거나(23.8%), 남한 보다 더 심한 것 같다(16.4%)고도 한다.

소수의 청소년이 시험 중 부정행위, 어른 몰래 술 담배 하는 것, 하급생 구타, 절도 등 비행을 저지르는 일은 종종 일어난다고 한다. 대개 폐의 두목격이 되는 청

소년이 부자집 애를 시켜 집에서 술담배를 가져오게 하거나, 자신이 집에 부자인 경우, 집에서 가져와 같이 마시고 피운다고 한다. 그 부자집이란 당 간부집이거나 외화벌이 일을 하거나 재일교포 집안인 경우가 많다. 동네에서 닭을 훔쳐 팔아 돈을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일에 대해 죄의식을 갖는 것 같지는 않다. 특히 집단폭행이나 폐싸움은 다반사이다. 드물지 않게 동네 장사하는 노인들을 습격하여 물건이나 돈을 폭력적으로 뺏는 일이 목격된다고 한다. 그러나 대체로 어른에 반항하기, 기물파괴, 강탈, 그러나 무단결석, 성폭행 등을 그리 흔하지 않다. 남한에서와 같은 가출, 집단 혼숙, 물질 남용, 유홍가 출입, 성적비행 등을 드문 것 같다.

아이들은 몸에 흥기 하나는 가지고 다니려고 한다. 예를 들어 작은 손칼로 무릎을 찌를 수 있는 것 등이다. 북한돈 1원이면 그런 것을 사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갈아서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한다. 각반 휘두르는 것도 배우는데, 농촌봉사 나갔을 때 군인들에게 그런 것을 배운다고 한다. 북한 청소년들은 늘 언제 어디서고 폭력을 당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호신 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런 것에 그다지 신경 안 쓴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북한에서는 말이 무척 혐하다. 남자들끼리는 늘 “새끼”라는 말이 불어있고, 여자아이들끼리도 “간나”라는 욕을 쓴다. 듣기 험악한 욕을 밤 먹듯 혼히 쓴다고 한다.

전반적으로 북한청소년들의 비행은 폭력 일변도이나 비교적 단순한 형태이어서 남한이나 서구사회에서 보는 심각하고 다양한 비행이나 높은 빈도의 정신장애들과 매우 대조적으로 보인다.<sup>9)</sup> 그리고 흥미 있는 것은 이러한 비행의 원인이 가족성분에 대한 불만(29.6%)과 가난(26.1%), 북한체제에 대한 불만(24.8%), 나쁜 친구의 영향(9.1%)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가정불화, 교사의 지도부족 등은 그 원인이 되는 수가 적다고 한다.

## 2. 북한 청소년의 발달

### 1) 신체발달

북한청소년의 체격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그들의 신체발달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다. 소녀의 경우 초경의 연령이나 기타 이차성징이 나타나는 연령에 대해서도 자료가 없다. 그러나 탈북 청소년이나

대중매체에 나타나는 청년들의 체격을 볼 때 남한의 청년들보다 체격이 더 왜소한 것 같다. 키도 작고, 체중도 적어 보인다. 필자가 면담했던 탈북청소년들도 남한의 같은 또래보다 키가 작고 체중도 적었다. 즉 그들의 신장이 157~160cm으로, 남한 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들(평균 170cm 정도) 중 가장 작은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북한에서는 중간보다 약간 작은 편에 속했었다고 한다. 그들의 부친은 키가 164cm으로 북한에서는 중간 정도라 하였다. 이는 북한 청소년들이 그들의 부모세대들 보다 키가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탈북청소년들에 의하면 요즘 북한 인민하고 어린이들은 과거 자기들보다 더 작다고 한다. 이는 북한에서 식량난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sup>10)</sup> 이러한 상황은 북한 청소년들의 신체적 발달, 그리고 추정컨대 대뇌의 발달도 다소 지연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신체상에 있어, 북한에서 잘생긴 남자란 통통하고 키가 큰 사람이다. 날씬한 사람은 “기름 독에서 빠져 나온 것 같이 보여” 북한에서 가장 싫어할 만한 사람 모습이다. 여자의 경우도 통통한 모습이 인기 있다. 예를 들어 빼빼 마른 여자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대놓고 “와 비린내 난다”라고 놀린다는 것이었다. 북한에서는 그 사람 모습만 보아도 당간부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 체형과 옷차림, 걷는 모습 등에서 차이가 난다. 얼굴 중에는 눈을 중히 여긴다. 쌍꺼풀이 인기가 있다. 이와 같이 통통하고 복스런 모습이 선호된다는 것은 남한이나 서구사회의 날씬한 몸매를 선호한다는 사실에 비교된다.

## 2) 인지발달

북한 청소년들의 인지기능 즉 지능, 지식, 정보수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자료가 없다. 그러나 전체 사회의 폐쇄성이거나, 획일화하고 단순한 학교교육, 독서 범위의 제한, 기타 사회적 정보의 제한 등을 고려할 때, 북한 청소년들은 남한의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지식수준보다 뒤떨어져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한이나 서구사회의 장기간의 교육과 경쟁적 자본주의 산업사회에 대비한 여러 사회기술이나 정보의 습득 수준에 비해 북한 청소년의 상황은 열약하며 후진적이라 하겠다.

청소년들의 생각을 하고,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선생님들의 학교교육(22.8%), 친구들의 의견(22.8%), 부모의 의견(19.1%), 비공식적인 여론(16.5

%), 언론(16.5%)등이다.

면담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자신들의 사회, 즉 학교생활이나 패거리 조직 내에서 어떻게 정보를 모으고 처신하는가 하는 능력, 즉 폭력적 조직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은 불균형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공산주의나 또는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집중적 학습을 통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적 사고체계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의식과 지식이 갖추어져 있는 것 같다. 또한 그런 사상에 따라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하며 어떤 인격품성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론적 학습은 잘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지식은 암기수준일 수도 있지만 청소년기의 발달상 특징에 따라 자아 정체성<sup>11)</sup>으로 동일시 내지 통합되어 있을 가능성도 크다.

전체적으로 그들의 인지기능을 사회적으로 다양하지 못하고 단순협소하며 추상적 사고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즉 인지기능의 발달도 지연되고 있지 않을까 추정된다.

## 3) 정신성적 발달

북한 청소년에 있어 이성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이를 표현하거나 행동화하는 것이 늦기도 하고 제한되어 있는 것 같다. 학교에서 성교육은 거의 없다시피 하며 가정에서도 부모들과 성에 대해 대화하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그들은 성에 대해 대개 무지하다. 성에 대한 지식은 주로 친구들끼리의 대화나 책을 통해 짐작으로 얻는다. 키스 같은 신체접촉만으로도 임신이 되는 줄 아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한다. 성은 대체로 어둡고 개운치 않는 일, 들키면 잡혀가는 일로 인식하고 있다. 성적 표현은 전반적으로 죄악시되고 금기시 된다. 특히 자위도 죄악시되는 경향이 크며 흔히 시행되는 것 같지 않다. 청소년중에 성범죄나 임신 같은 사건이 있기는 하나 드물다. 임신은 매우 곤란한 사태로서 청소년들의 경우 낙태하기 위해 홀쩍홀쩍 뛰거나, 배를 때리는 등 무지한 물리적 방법을 쓴다고 알려져 있다. 1987년도부터 고등중학교가 남녀 공학이 되면서 성적 자극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보다 이성교제를 시도하는 나이가 보다 어려지는 등 자유로운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전반적으로 인지발달과 신체발달의 지체와 더불어 정신성적 발달은 지체되어 있는 것 같다. 즉 이성보다 동성관계에 치중하는 바, 사춘기 이전 단계인 잠복기

(latency period)<sup>11)</sup>가 연장되고 있는 듯 한다. 그리고 사춘기로의 발달이 충분하지 않은 채 청년기로 넘어 가는 것 같다.

#### 4) 자아정체성의 발달

북한 청소년들이 심하게 자아정체성 문제<sup>12)</sup>를 의식하거나 그에 대해 고민하거나 방황하는 소위 격동기적 모습<sup>13)</sup>은 별로 눈에 띄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자아정체성의 확립 문제로 방황하는 모습은 짐작되는 바 있다. 예를 들어 폐거리에 속하여 그 곳의 위계질서(hierarchy)에 순응하려는 모습이나, 폐거리에 대해 의리를 지키고자 하는 태도, 일부 선택되는 소수에 해당하지만, 고등중학교 졸업 후 진로에 대해 미리 계획 세워 진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폐거리에 속해 거기에 충성하며 같이 놀거나 같이 술 담배를 하거나, 다른 폐거리와 싸움질을 하는 것 등은 청소년기의 자아정체성 확립의 과정의 하나로 다른 서구사회와 남한 사회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단지 차이가 나는 것은 18.9세로 고등중학교 졸업에 즈음하여 공부 실력보다도 집안의 성분에 따라 또는 사회계층에 따라 졸업후 장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에 대해 고민하거나 곧 체념해 버린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출신성분(37.6%)과, 진로문제(28.5%), 경제적 어려움(17.6%) 등이 그들의 주된 고민거리이다. 그 외 고민거리로는 학업문제, 이성교제 문제, 집안의 불화문제 등이 있다.

청소년들이 영웅시하는 사람에는 아버지나 교사보다도 학교에서 가르쳐 준 대로 당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 6.25때 장렬히 전사한 전쟁영웅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당장은 싸움 잘 하는 친구가 영웅이다. 그러나 자신의 장래직업에 대해서는 돈 버는 일, 즉 무역일꾼(31.2%), 상업일꾼(15.8%), 연예인(14.5%), 운전사나 기관사(14.5%) 등이 인기가 있고, 선생님, 교수 또는 과학자(12.8%) 그리고 군인은(6.8%) 보다 못하며, 노동자와 농민(0.4%)은 인기가 가장 없다.

여자 청소년은, 대체로 어머니나 누이들, 그리고 여학생 등 여성의 차별대우 받음에 의해 남자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 같다. 이 모두 남한이나 서구사회에 비해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북한 청소년들의 자아정체성 문제는 전체적으로 격정적이지 않으며, 단순하고 일찍 종결되어,

남한이나 서구사회에 비해 대조적이다.

#### 5) 정신사회적 발달

북한 청소년의 사회생활도 단순하다. 학교 수업시간과 지역사회공식행사에 동원되는 일 이외에는 그냥 친구들과 노는 일이 그 일파인 것 같다.

사회적 권위에 대해서는 비교적 복종적이며, 직접적으로 반항을 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관행이 청소년들에게 깊이 인식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규칙을 위반하거나 수동적으로 반항을 하는 것 같은 표시는 있다. 즉 청소년끼리 폐거리를 형성하여 집단의 싸움을 하거나 끼리끼리 모여 술 담배를 하는 것 등이다. 최고 권력자나 당에 대해서는 절대적 복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일부 청소년들은 통제에 대한 반발심도 다소 생기고 회의하게 될 것 같은 여지도 많다. 그러나 더 나이가 들면 포기하고 순종하는 수밖에 없다고 체념한다. 또한 나이가 들에 따라 북한사회가 부패되어 있고 뇌물(와이로)이 성행한다는 것을 결국 알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기는 하나, 반항하기 보다 순종 내지 체념하고 있는 듯하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 또는 권위에 대한 공포나 경외심은 있으나 죄의식은 희박한 것 같다. 북한 청소년들은 폭력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구시대적 전체 군주시대적인 사회에 있고, 그런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북한 청소년들은 돈에 대해서는 아쉬워 하지만 워낙 돈을 얻는 수단이 제한되어 있어 거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워낙 궁핍한 경제 상태와 식량난으로 인해, 돈을 밟히고 장사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사회관은 비교적 철저한 교육으로 깊이 인식되고 있는 것 같다.<sup>14)</sup> 역사교육을 통해 고구려와 고려를 중요시한다. 신라의 통일에 대해 당나라 같은 외세를 끌어들였다 하여 비판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즉 통일은 고려가 이룩했다고 생각한다. 이성계 위화도회군도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몽고침입도 우리나라가 격퇴한 것으로 알고 있다. 즉 국가적 자부심을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교육받고 있다.

종교에 대해서는 북한 청소년들은 무지하다. 종교는 단순히 아편과 같다고 교육받았으며 따라서 종교에 대

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다. 탈북자 청소년들은 남한에 와서야 종교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믿고 복종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는 것이 북한에서 김일성 믿고 자아비판하는 것과 유사하여 쉽다는 느낌이 있다고 한다. 신에 대한 개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북한 청소년들은 신체적 및 지적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뛰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회적 성숙이 다소 늦은 것 같으나, 한편 이념면에서만은 소박하지만 남한 청소년들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비대하게 발달해 있는 것 같다. 그들은 전반적으로 순박하며, 동성 친구에 대한 우정 또는 패조직에 대한 의리를 중히 여긴다. 예절을 중시하고 국가 사회에 대해 충성하는 마음이 있으나 이는 권위주의적 폭력에 잘 길들여진 순응의 결과인 것 같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최근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북한 청소년들이 점차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거나(32.9%), 타락하고 비행이 많아 지거나(20.0%), 이기적이 되어가며(14.1%), 불쌍해져 가기도 하고(9.4%), 불만이 많은 집단(8.2%)으로 되어 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 6) 도덕성 발달

북한 청소년들은 대체로 제한된 환경 아래서, 고상한 사상의식과 정치도덕성 강조, 동지적 협조(집단주의), 그리고 무한한 희생정신과 헌신성 등을 강력한 교육방침에 따라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sup>6)(7)</sup> 그 결과 소박한 도덕성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청소년에 대한 도덕교육의 구체적인 예는 인사하기, 어른 모시기 등이다. 그러나 대도시에서는 교육이 철저하나 시골에서는 청소년들이 어른에게 무례한 수가 많다고 한다.

실제 생활에서는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우정과 의리이다. 친구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인간성을 많이 따진다. 남한 젊은 이에 비해 서로간에 정이 더 많다고 한다. 사회와 이웃 그리고 “동무”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윤리의식이 돋보인다. 남한에 내려와서 충격 받은 일 중 하나는, 친구라고 생각하여 무슨 부탁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쉽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 이었다고 하였다. 북한에서는 친구라고 부탁하면 힘이 들더라도 무슨 수를 쓰든 들어주려고 한다는 것이다. 반면 남한 젊은이들은 싫으면 싫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어 나중이라도 불편한 관계를 피하자 하는 것이 북한과 비교된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주의 이상사회의 건설을 위해 청소년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며, 무언가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통일에 대해서도 매우 열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도덕성은 어려서부터 일관된 통제된 교육의 결과 즉 사회주의 인민의 고상한 품성에 대한 교양의 결과로서, 그리고 다양한 정보나 부정적인 사회적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형성된 것 같다.

한편 청소년들 사이에 친ning이나 닉서리 하는 것, 패싸움하고 또 보복하는 것, 외톨이가 된 아이들이나 여자아이를 구박하거나 놀리는 행동 등에 대해서는 죄의식을 그리 느끼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일들을 비록 자아비판시간에 거론될 만한 일인데도 자아비판이 위낙 형식적이 되다보니 진심으로 잘못했다는 의식이 희박해져 버렸다고 한다.

나이가 들에 따라 대학진학과 직장선배, 군대입대, 입당 등에 있어 신분, 가족배경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뇌물 등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희망이나 능력은 상관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기가 꺾이고 의욕이 좌절된다. 이 모든 것을 체념하는 상황에서 운명으로 받아드리고 청소년 초기에 가졌던 순박한 도덕성이 위협받는 것 같다.<sup>14)</sup> 그러나 최근 북한 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청소년들이 얼마나 알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전체적으로 북한 청소년들은 예절, 의리, 이타주의 등에서 윤리의식이 돌보이나 한편 실제 생활에서는 그 실천의지나 죄의식은 회박한 것 같다.

## 토 론

본 연구는 소수의 탈북 청소년과의 면담, 그리고 성인 탈북자들에 대한 면담과 설문지 조사를 통해 시행되었으므로,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가나, 직접적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해석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달리 자료를 구할 수 없는 형편에서 이러한 결과는 북한 청소년들의 상황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고 향후 연구를 위한 출발점으로 있을 수는 있다고 보아 의의가 있다고 본다.

과거 구소련은, Bronfenbrenner<sup>15)</sup>에 의하면, 소비에트화 과정에서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집단 또는 국가

가 청소년 교육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면서 고상한 사회주의적 도덕적 품성을 가진 청소년을 교육해 낸다고 선전하였다. 그러나 Kim<sup>16)</sup>에 의하면 실제로는 교조주의 적이며 이데올로기와 집단주의에 매여 판에 박은 듯한 편협한 인격체만 양산해 왔다고 비판되고 있다. 최근 구소련에서 현재의 러시아로 개방화 내지 민주화되면서, 다시 한 번 더 과거의 가치질서가 배격되고 새로운 가치질서가 강요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미처 가정은 재건되지 못한 채, 사회교육체계는 붕괴되고, 학교교육은 이를 보충하지 못하여, 사회전체에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도덕적 방황과 혼란이 찾아오고 있다. 위기적 상황에 따라 갖가지 사회문제와 더불어 청소년 문제 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북한은 오랫동안 구 공산주의 소련의 사회형태를 대체로 따랐으나, 그 폐쇄성은 더 심각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는 교육에서도 모든 것이 당에 의해서 지도 감독되고 당의 지침, 특히 최고 통치자의 지침이라는 것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 즉, 북한의 교육은 최고 통치자의 지침이 교육의 목표에 어떻게 하면 가장 원활하게 주입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중점이 주어진다. 그리하여 북한은 소련식의 판에 박은 듯한 단순하고, 복종적이고, 그러나 한편 순박하면서도 폭력논리에 잘 길들여진, 인격성숙이 지연되어 보이는 특이한 모습의 청소년들을 양산해 왔다. 따라서 통일이 되어 남한사회에 직면하게 될 때 겪을 수 있는 혼란은 현재 러시아에서 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독일의 경우, 서병철<sup>17)</sup>에 의하면, 통일에 따라 구 동독인들은 구소련의 경우보다 더 신속한 그리고 보다 잘 준비된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eters<sup>18)</sup>에 의하면 통일전부터 있던 감정적 거리감이 통일 후에 더 증폭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구 동독인에게 과거에 대한 공포가 여전히 긴 그림자가 드리워 있으며, 그리고 상호 오씨(Ossis)니, 베씨(Wessis)니 하는 경멸적인 별명을 부르는 데서 보듯이, 양측 사람들 모두에게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sup>19)</sup> 특히 Maaz<sup>20)</sup>에 의하면 서독인의 우월감에 대조적으로 동독인에게는 이등국민이라는 좌절감과 피해의식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에서 비행과 신나치적, 파괴적, 정치적 집단행동이 나타나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비해 상호 전쟁을 했던 북한인들과 남한인들과의 사이에 느끼는 거리감은 동서독간 보다 더 크며, 적

대감은 더 심각하다고 추정된다. 더구나 북한의 폐쇄성 때문에 북한인들이 남한과 남한인들에 대해, 나아가 그 밖의 세계에 대해 너무나 모르는 것이 큰 문제이다. 남북통일이 되어도 남북한인들 간의 거리감이나 적대감이 동서독 경우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따라 사회적 갈등문제는 더 심각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후 북한 청소년들은, 탈북자 청소년들의 나관적 견해와는 달리, 남한사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청소년들이 후에 성장하여 통일된 사회에 주역이 되었을 때에도 그러한 갈등은, 오히려 당장 통일이 이루어 질 때에 비해,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한청소년들도 북한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견해도 있다. 즉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에서 대학 생활을 하며 가장 놀란 것 중 하나는 남한 학생들이 북한에 대한 관심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한 청소년 탈북자가 대학에 들어가 첫 써클이라고 들어간 것이 주로 노래를 부르는 써클이었는데, 여기서는 아무도 북한의 정치나 경제사정 등의 진실을 알려고 하고 진지하게 묻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운동권 써클인데도 여기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그저 북한에서 부르는 노래를 가르쳐 달라, 인기 배우들이 누구냐는 정도였지 그 이상이 아니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동포애가 없어 보여 섭섭했다고 한다.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에 관하여 관심이 아주 많다고 한다. 모이면 자기들끼리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서로에게 이야기 해 준다. 남한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 별복공에게 들은 이야기 등. 그러면서 남한의 상황이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야기 해 준 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탈북자들은 북한이 개방되면 청소년들이 성인보다 더 잘 적용할 것이다라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북한 청소년이 남한에 대해 실망하게 된다면 그 반응도 더 심각할 수 있을 것이다.

탈북청소년들의 통제되고 폐쇄된 사회 특유의 잘 훈육된 모습과 남한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청소년들의 모습은 대조적이다. 북한청소년들에게 순박성, 순옹적 품성, “끈끈한” 가족적 유대감, 집단성, 의리의 중시 그리고 이타주의적 품성이 있고, 또한 청소년 특유의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모험심, 그리고 상상력과 창의력이 북한청소년들에게도 남아 있을 것을 예상한다면, 나아가 남북한인들이 오랫동안 공유했던 전통

적 문화를 고려하면, 또한 남한의 우리가 잘 준비하고 미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최소한 청소년만큼은 통일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교육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북한청소년들이 동독 청소년같이 극우주의적 정치적 비행행동을 나타낼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이유는 한반도의 국제적 주변상황이 동독과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통일후 성인들이 내적 통일과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우월감과 이등국민의식이 충돌하게 되면 이러한 사회전체의 긴장의 여파가 청소년에 미쳐서 보다 심각한 혼란상태가 올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는 많은 측면에서 신중한 그리고 철저한 연구와 준비를 거쳐야 통일후 갈등을 줄이고 상호적용에 순조로이 진행되어 진정한 사람의 통일이 가능해질 것임을 시사한다.

### 참고문헌

- 1) 민성길, 전우택(1996) : 사람의 통일, 정신의학적 접근. 송자, 이영선(편) : 통일사회로 가는 길. 서울, 도서출판 오름 pp 72-110
- 2) Sebald H(1979) : Adolescence. 2nd ed., New York, Printice-hall Inc.
- 3) 이영숙(1991) : 북한 청소년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 4) 전우택, 민성길, 이만홍, 이은설(1997) : 북한탈북자들의 남한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6 : 145-161
- 5) Morgan DL(1989) : Focus group as qualitative research. Newbury Park, CA : Sage Publication
- 6) 김일성(1977) :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 전원회의 발표. 1977년 9월 5일. 김형찬(편)(1990) : 북한의 교육, 을지문화사. 서울. pp481-513
- 7) 김정일(1988) :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 데에 대하여. 근로자. 평양
- 8) 조태현(1990) : 북한 인민학교 교육의 변천과 내용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9) 민병근, 이길홍, 김현수(1981) : 한국청소년의 의식구조와 행동양식. 한국의과학 13 : 61-75
- 10) DPRK Nutrition survey(1998) : Reported by EU, UNICEF and WEP of a study undertaken in collaboration with the Government to DPRK
- 11) Erikson EH(1959) : Identity and the cycle. Psychological issue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12) Freud A(1965) : Normality and Pathology in Childhood.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13) Bandura A(1964) : The stormy decade : Fact or fictions? Psychology in the School 1 : 224-241
- 14) Kohlberg L(1963) :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orientation toward a moral order : Sequence in the development of moral thought. Vita Humana 6 : 11
- 15) Bronfenbrenner U(1976) : Two worlds of childhod. US and USSR.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16) Kim L(1995) : 소비에트 인간의 형성과 현대 러시아 교육체계 위기. 연세의대 정신과 초청강의 1996년 5월
- 17) 서병철, 전경수(1995) : 통일사회의 재편과정.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18) Peters UH(1991) : Über das Stassi-Vertolten-Syndrome. Fortsch Neurol Psychiat 59 : 251-265
- 19) Bhm J, Brune J, Florchinger H, Helbing, Pinther A(1993) : Deutsch Studen. Was Jugendliche von der Einheit denken. Berlin, Argon Verlag GMBH
- 20) Maaz HJ(1990) : Der Gefuhlesstan-Ein Psychodramm der DDR. Berlin, Argon Verlag GMBH

## Life and Development of Adolescents in North Korea

Sung Kil Min, M.D., Woo Taek Jeon, M.D., Deok Ryong Yoon,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Objective :** This study was aimed to understand the life and development of adolescents in North Korea.

**Mothods :** The authors interviewed North Korean adolescent defectors on the past life history in North Korea, and also collected information by questionanire from North Korean adult defectors on their views about the life and development of North Korean adolescents.

**Results :** The lives of adolescents in North Korea seem to be poor, tough, dry, and monotonous. However, familial bonds seem to be strong, which is contrast to the general impression that family is not important anymore in a socialist nation. Social pressure seems to be strong enough to force adolescents to leave home at an early age. The school education seems to be focused on shaping them according to socialist ideology and national policy. The social atmosphere seems to be authoritative and of patriarchy, probably influenced by traditional confucian philosophy. In general, filial piety for the father figures(including a national father, the late president, Kim Il Sung and the current leader, Kim Jung Il), altruism, social contribution, patriotism, and a moral socialist personality are strongly emphasized in education. The effectiveness of teaching methods mainly based on a punishment system and public criticism seems to be very limited in being integrated to true mature personality development. Recently, the life view and behavior pattern of adolescents in North Korea seem to be changing according to the severe economic crisis and expanding knowledge about the outside world. Particularly, their interest in making money is increasing with a parallel increase of delinquent behavior. Physical development seems to be delayed along with a delay in psychosocial development. Their cognitive functioning looks also to be delayed due to the uniformity of education and limitations in intellectual and psychosocial stimulation. In contrast to the literal equality in the rights of men and women in socialist countries, girls' rights are usually ignored by boys. Establishment of psychosexual identity seems delayed and the opportunity for relations with people of the opposite sex seems to be limited. Rather, peer relationships with the same sex and group loyalty are considered to be more valuable. This group orientation seems to lead to national loyalty, loyalty for the Communist Party and eventually its leader in adult life. Pervasive violent political oppression seems to be the dominating social power. Whole social authorities(father, teacher, Party, nation, leader) seem to be power-oriented figures. Adolescents have been programmed to bow down and resign to oppression rather than to protest against it. And this compliant behavior has become stereotyped. Identity crises, which so often characterize the adolescent period, seem not to be so turbulent, develop later and finish early with resignation because of the limitation mainly imposed by the political status of their family origin. Ideological morality seems to develope in unbalanced form, related with school education and repeated stereotyped self-criticism. However, their daily lives do not seem to be really moralistic.

**Conclusion :**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life and development of adolescents in North

Korea are different in many aspects from those in South Korea. However, compared with the individualism and egocentrism which are known to be personality characteristic of adolescents in South Korea, those of adolescents in North Korea, such as simple mindedness, compliant behavior, strong familial bond, group orientation and loyalty and altruism, are considered to make a positive contribution along with a proper education for the future construction of the nation after reunification. These findings also suggest that mutual adaptation problem between people of South and North Korea after reunification will not be simple and both Koreans have to prepare themselves in advance for future problems through prior studies.

**KEY WORDS :** Adolescents · North Korea.